

# 2020학년도 제1회 입사서류 경진대회 **금상** 수상작

지원분야(직무) *필수작성	간호	지원처 *선택작성	상급종합병원
성장과정	<p>선천성 폐 질환, 태어난 저의 진단명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출산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 가망이 없다는 말들을 여기저기서 들으며 저를 보내줄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들곤 했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저를 부모님께서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생명도 귀히 여기며 밤낮없이 지극 정성으로 저를 돌보셨습니다. 몇 달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치료를 받았고 '하나님(하늘)의 은혜'라는 뜻의 이름에 걸맞게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다.</p> <p>'포기해도 마땅한 생명은 없다'라는 신조를 가진 부모님께 걸려진 저희가 약자를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된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저희 삼 남매는 모두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남동생은 현재 소방 응급구조사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언니는 현재 간호사로서 임상에서 근무 중입니다. 저도 숭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받은 은혜를 타인에게 다시 흘리며 사는 삶을 추구합니다. 특히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p>		
성격의 장·단점	<p>꾸준함과 책임감은 저의 최대 장점입니다. 간호 업무에 있어서도 맡은 대상자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간호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탈북 멘토링은 대학교 입학 후 꾸준히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첫 멘티는 한글을 읽지 못하는 도심에서 아주 벗어난 곳의 10살 아이였습니다. 처음엔 감당하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음을 느끼고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고심하여 직접 자료를 만들어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함께 자막으로 된 영화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한글을 쓰고 읽을 줄 압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해 온 이 일은 아이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뜻깊은 배움이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여 지금은 팀장 자리를 맡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p> <p>단점은 이러한 성격 때문에 제 자신을 돌보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제가 맡은 일은 제가 책임지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 체력적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1년 전부터 꾸준히 수영을 하거나 조깅을 하며 체력을 키우고 있습니다.</p>		
학창시절·경력사항	<p>제가 사는 곳은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사는 동네로 봉사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아동센터에서 중학생부터 꾸준히 주 1회 지역아동센터 교육봉사를 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관심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대학생이 되어서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하는 다문화 멘토링, 지역사회아동센터 교육봉사 등 제가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0시간 이상씩 봉사를 하며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봉사를 할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하던 중 말레이시아 의료봉사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대학교 3학년 겨울 방학에 전기와 수도 시설이 없는 말레이시아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내가 가진 지식과 실무경험을 통해 누군가에게 가장 실질적인, 생명과 관련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참 보람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젠 이 병원을 통해 간호사로서 더 넓은 세상에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싶습니다.</p>		
지원동기·입사후포부	<p>00병원은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실습 병원입니다. 실습 기간 동안 간호사 선생님들을 관찰하고 배울 기회가 많았습니다. 정확한 치료 계획을 알려주는 것으로 불안한 환자의 마음을 완화시켜 주고, 수술 후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으로 몸이 회복되어 나가는 환자들을 보며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병원이라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매번 변함없이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쉬지 않고 약자를 위해 숭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의 삶의 모토와 맞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p> <p>어린 시절 제가 기억도 나지 않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병원의 의료진들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정확한 간호를 통해 제 몸을 회복시켜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저를 살렸던 의료진처럼 저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뛰어다니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환자의 회복을 위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p>		